

# 하늘아래 핀우리



만듦이 | 천사 해바라기  
그림이 | 화가 해바라기  
글쓰이 | 작가 해바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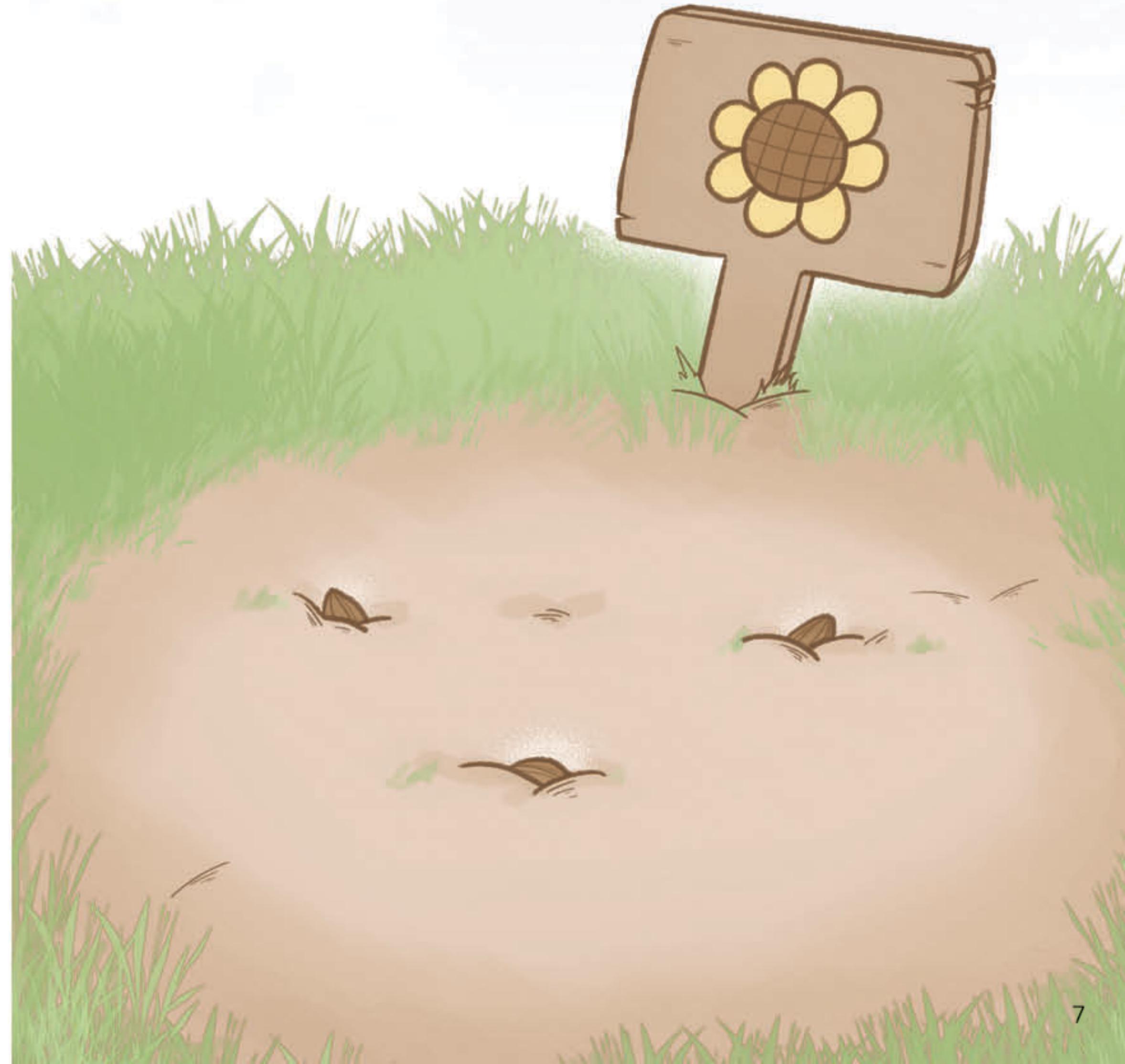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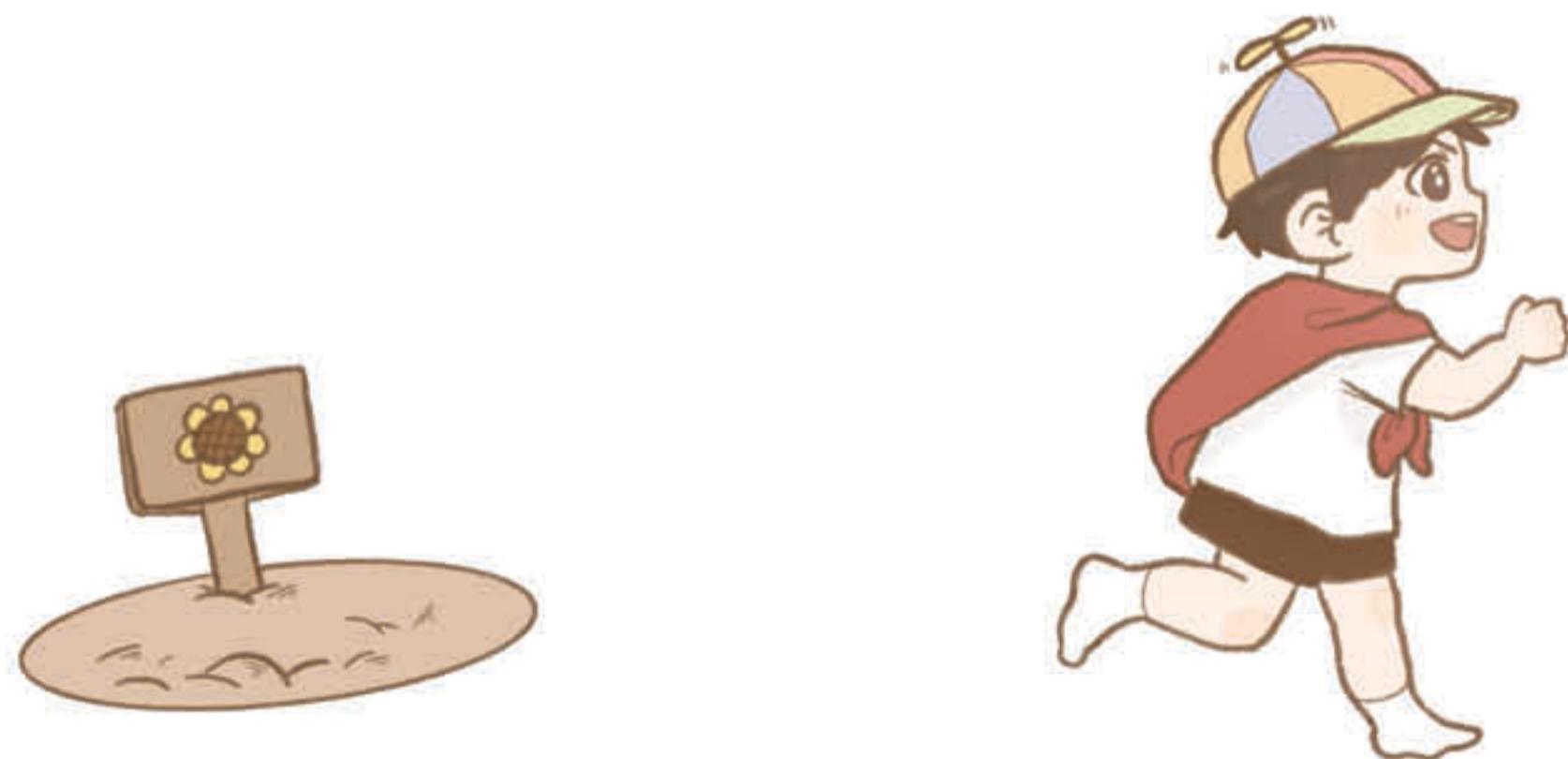
# 하늘아래 핀우리

만듦이 | 천사 해바라기  
그림이 | 화가 해바라기  
글쓰이 | 작가 해바라기

행복을 담아 이 책을 당신께.

## 우석이의 씨앗

아주 먼 옛날, 초원에는  
작은 해바라기 씨앗들이 옹기종기 모여 잠들어 있었어요.



그때, 동쪽 하늘에서 눈부신 빛을 내며 한 청년이 나타났답니다.  
스스로를 우석이라 부른 그는,



“안녕안녕!!! 나는 우석이야!”

하며 위풍당당하게 외쳤어요.



하지만 그는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어 막막했죠.



10

그때였어요.  
땅 속에 묻혀 있던 작은 해바라기 씨앗 하나가 용기를 내어 속삭였어요.

“우석님, 당신만의 길을 응원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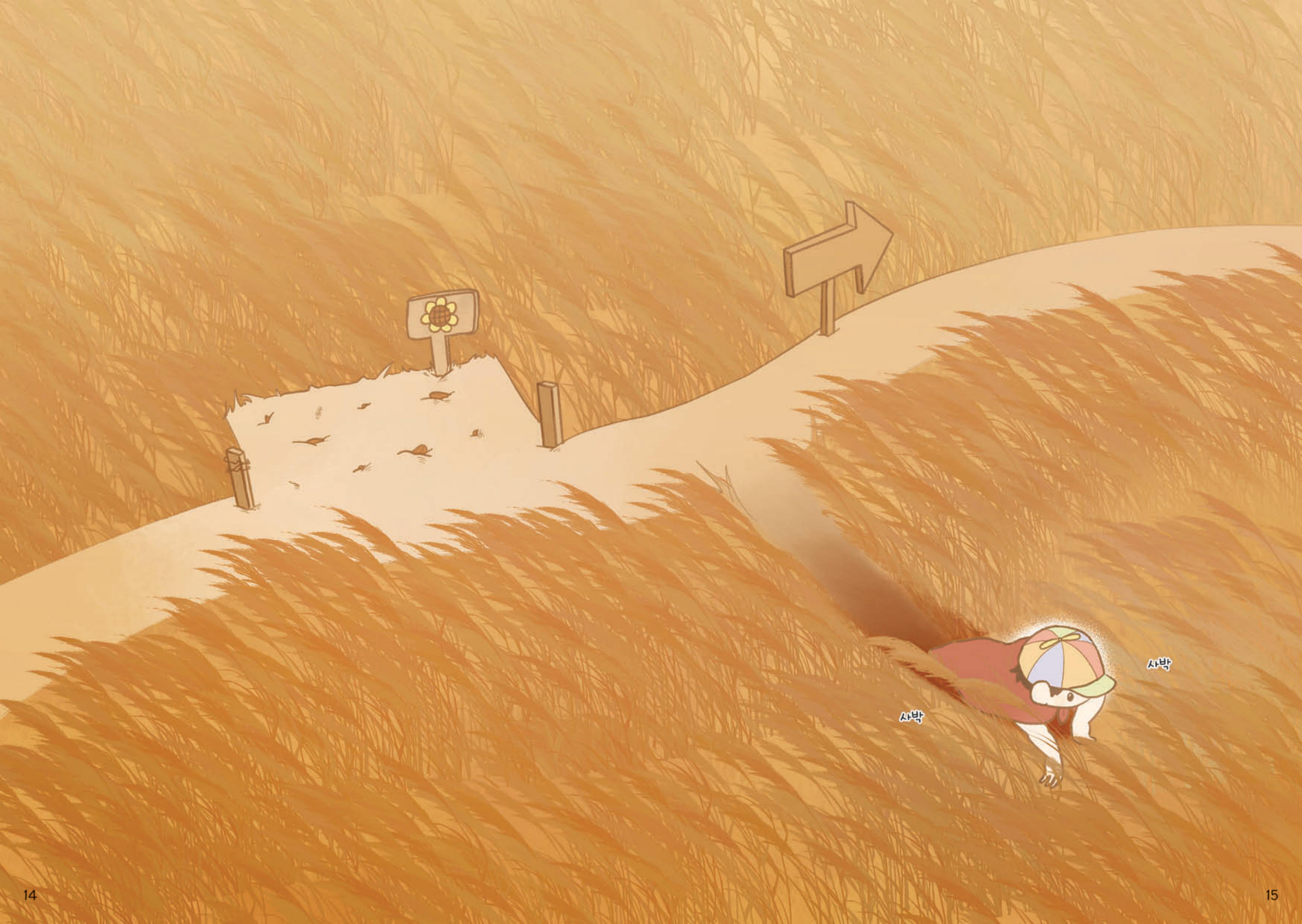


11

그 작은 속삭임은 우석이의 마음 깊숙이 스며들었어요.

그제야 우석이는 처음으로 스스로를 믿고 앞으로 나아갈 용기를 얻게 되었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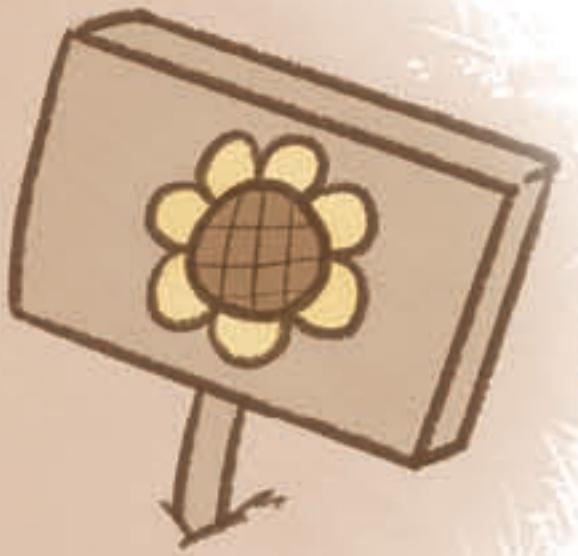




하지만 시련은 찾아오기 마련이었어요.

길을 잃고, 상처를 받아 휘청이기도 했죠.





그럴 때마다 작은 해바라기 씨앗들이  
하나둘 모여 마음을 보태주었답니다.

“할 수 있어요.”



그러자 신기하게도 우석이의 앞에는 작은 햇살이  
비추는 길이 활짝 열렸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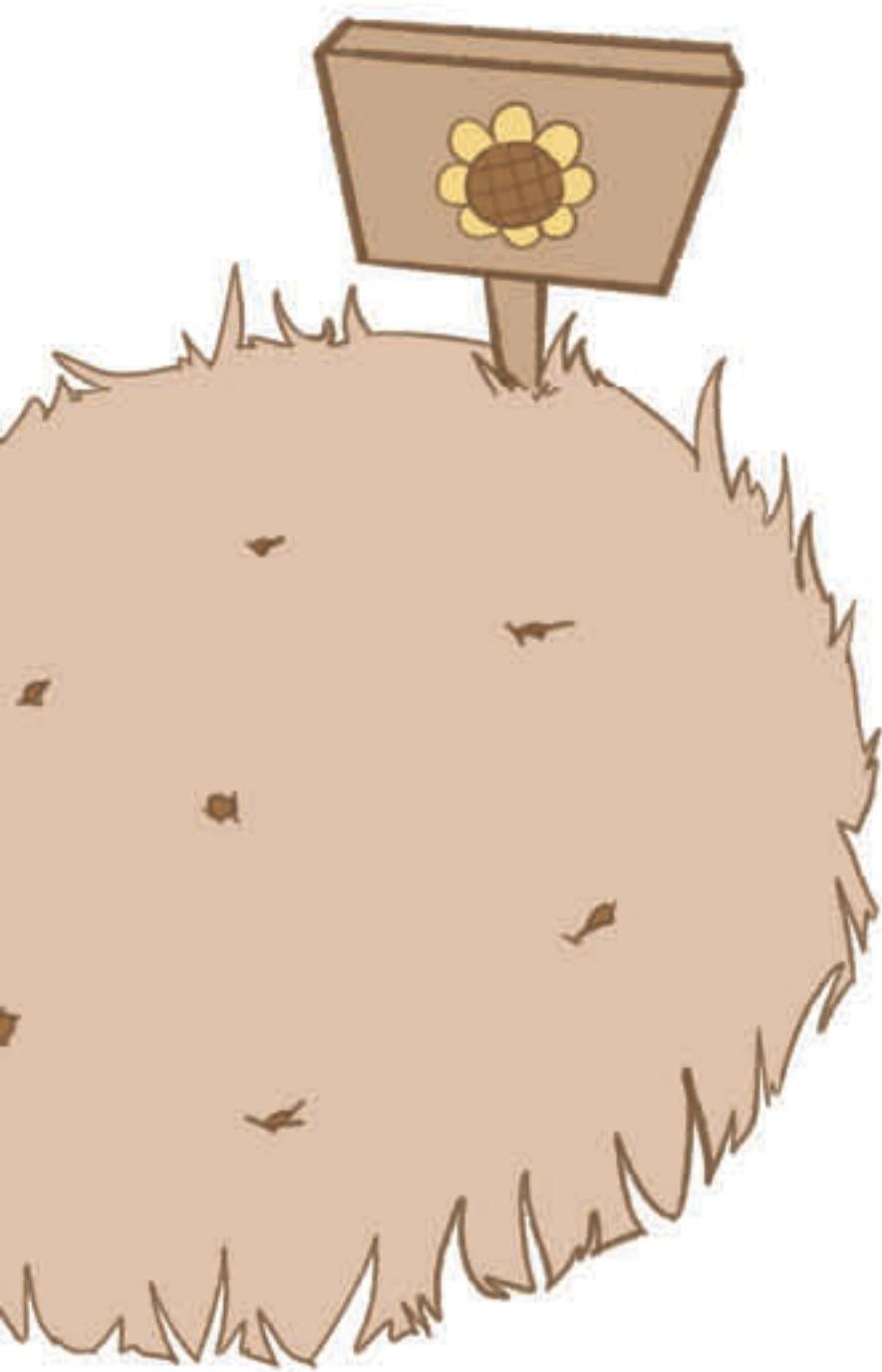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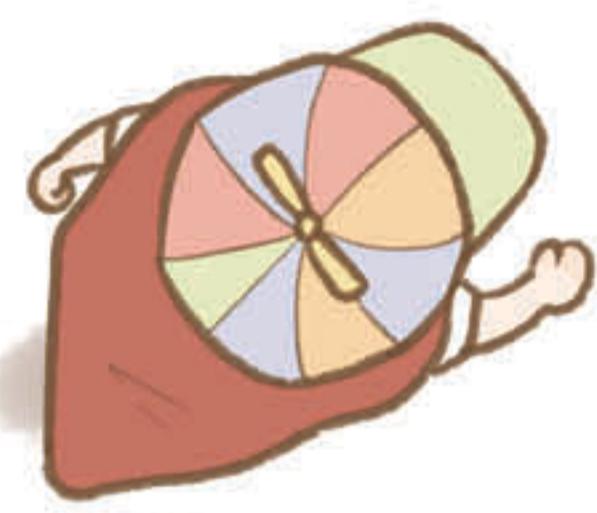
"씨앗들아! 도와줘서 고마워!"

우석이는 그 빛을 따라 한 걸음씩 힘차게 걸어 나갔답니다.

초원의 해바라기들은 고개를 빼꼼 내밀어 그를 바라보며 조용히 속삭였죠.



“이제부터가 시작이야.”



“고마워.”

선일이의 새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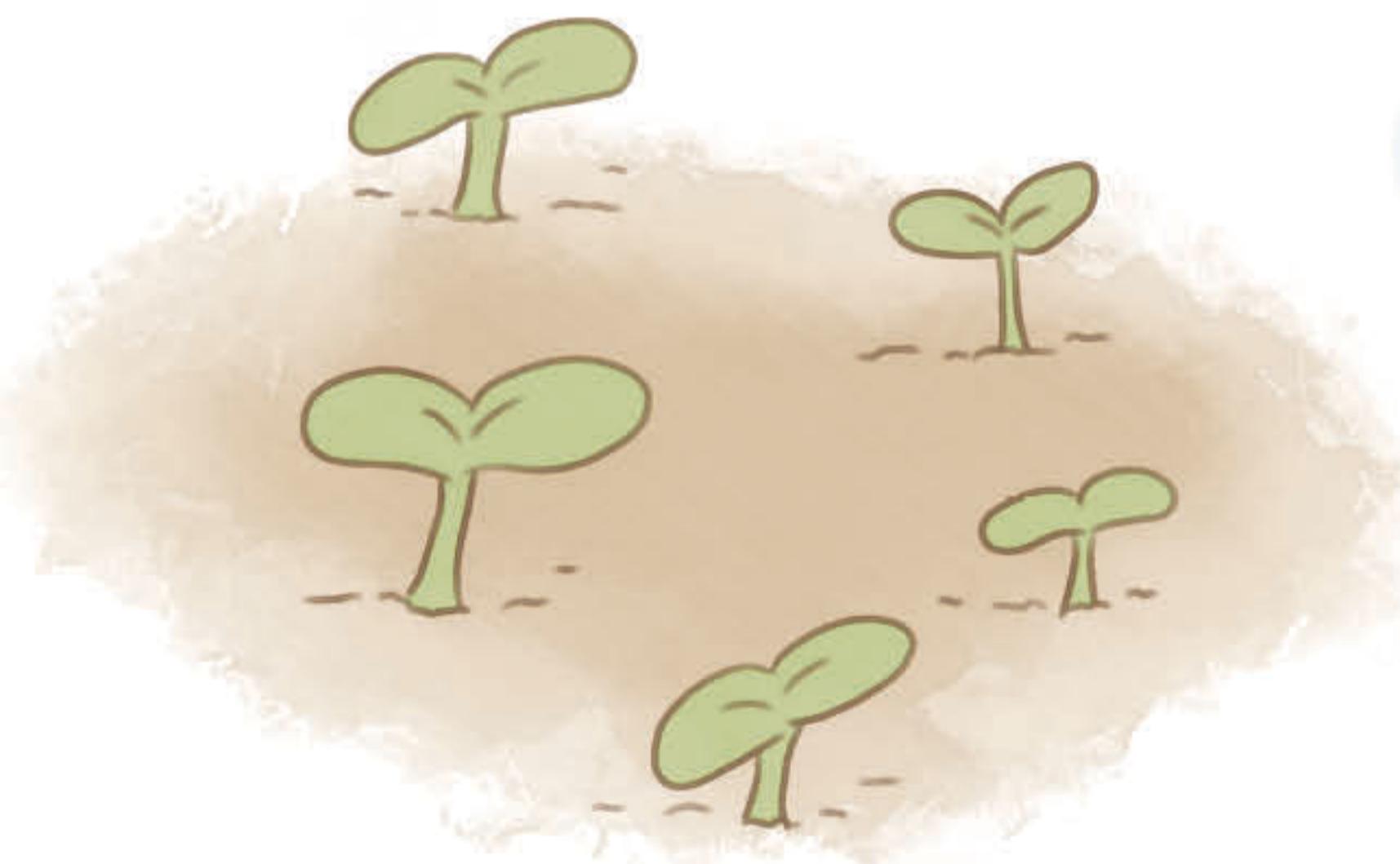


우석이가 지나간 길 끝에 희미한 그림자 하나가 나타났어요.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지만,  
그는 초원에 자연스럽게 스르르 스며들었답니다.

그의 이름은 선일.  
그는 바람처럼 자유롭다고 말했지만,

"안녕? 나는 공주야.  
나는 바람처럼 자유로운 사람이야!"



그 자유로움 뒤에는 언제든 길을 잃을 수 있는 외로움이 숨어 있었어요.



혼자가 될 때마다 그는 쉽게 방황하곤 했죠.





그때, 작은 해바라기 새싹 하나가  
바람결에 실려 선일이에게 속삭였어요.

“선일님, 당신의 목소리가 저희를 움직여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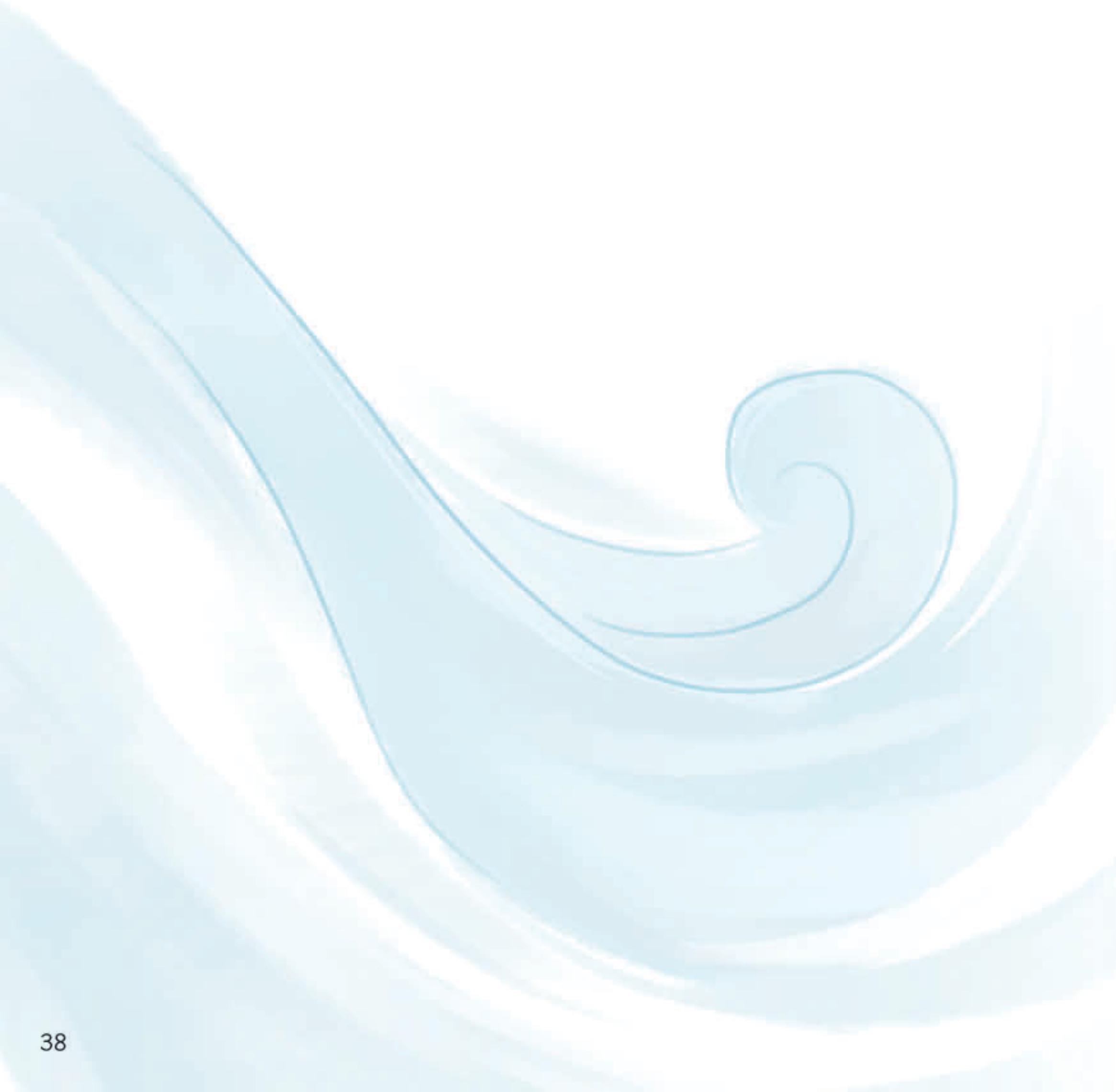
그 말이 바람을 타고 선일이의 가슴 깊이 스며들자,

“정말로?”



그는 마음속에 굳은 다짐을 새겼어요.

"그래! 용기내서 한 번 해보는 거야!"



때로는 거센 바람이 불어 길을 잊기도 했지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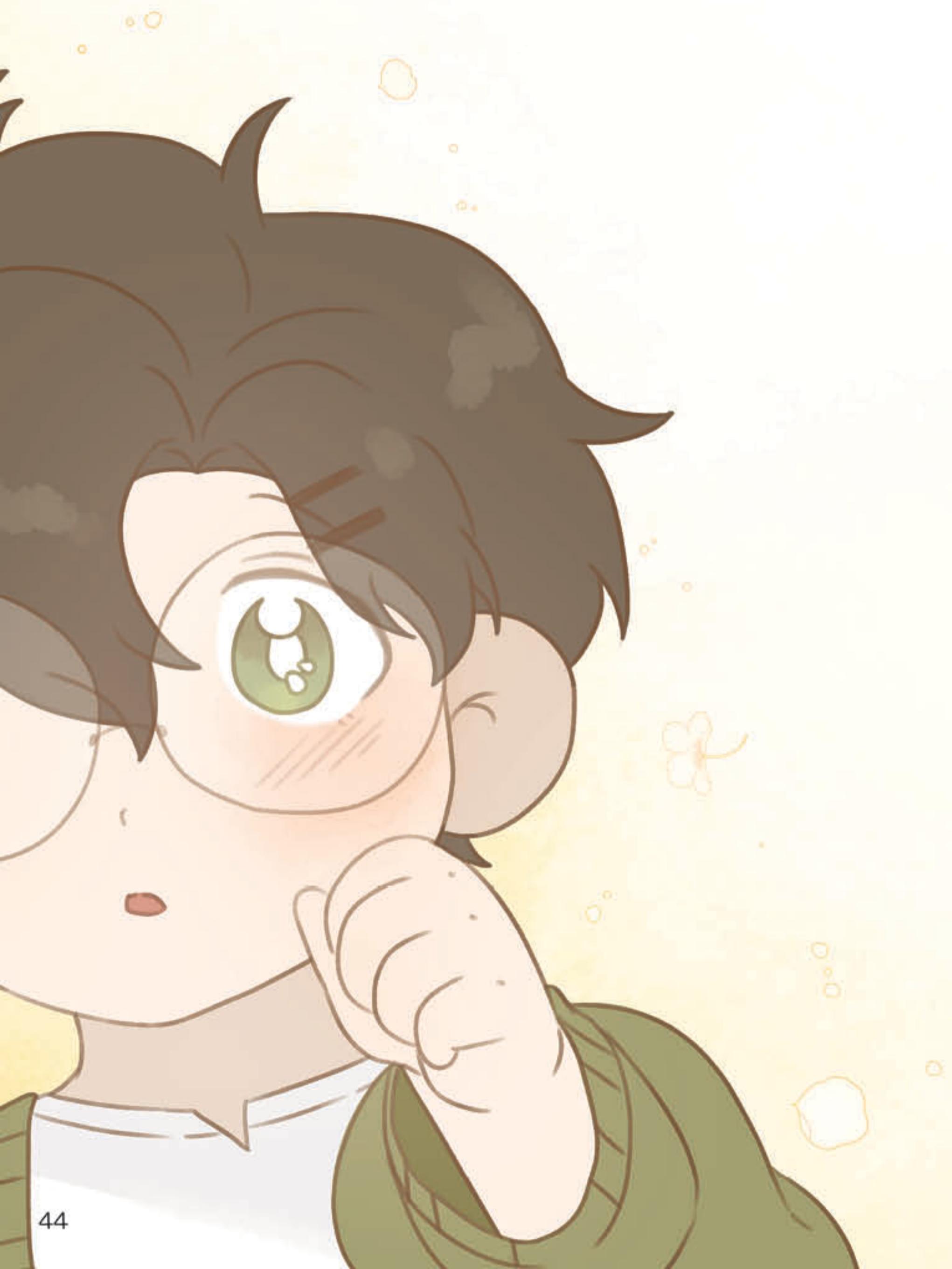
선일이는 자신이 가진 힘과 책임을 떠올리며  
다시 용기를 내어 걸음을 내딛었어요.



폭풍에 지쳐 웅크렸을 때도



그 따스한 바람은 선일이를 안전한 곳으로 이끌어 주었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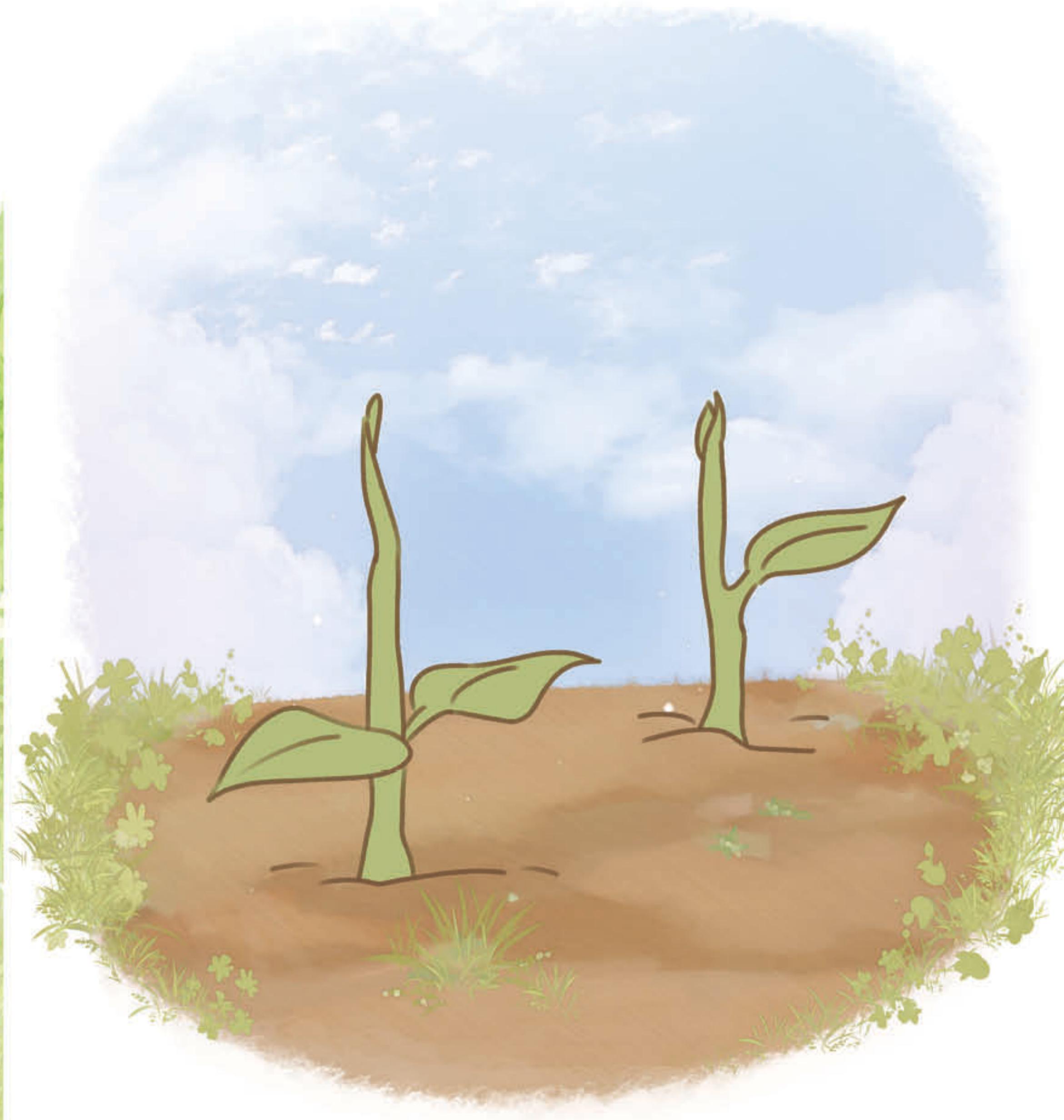
그렇게 선일이는 바람을 타는 용기를 얻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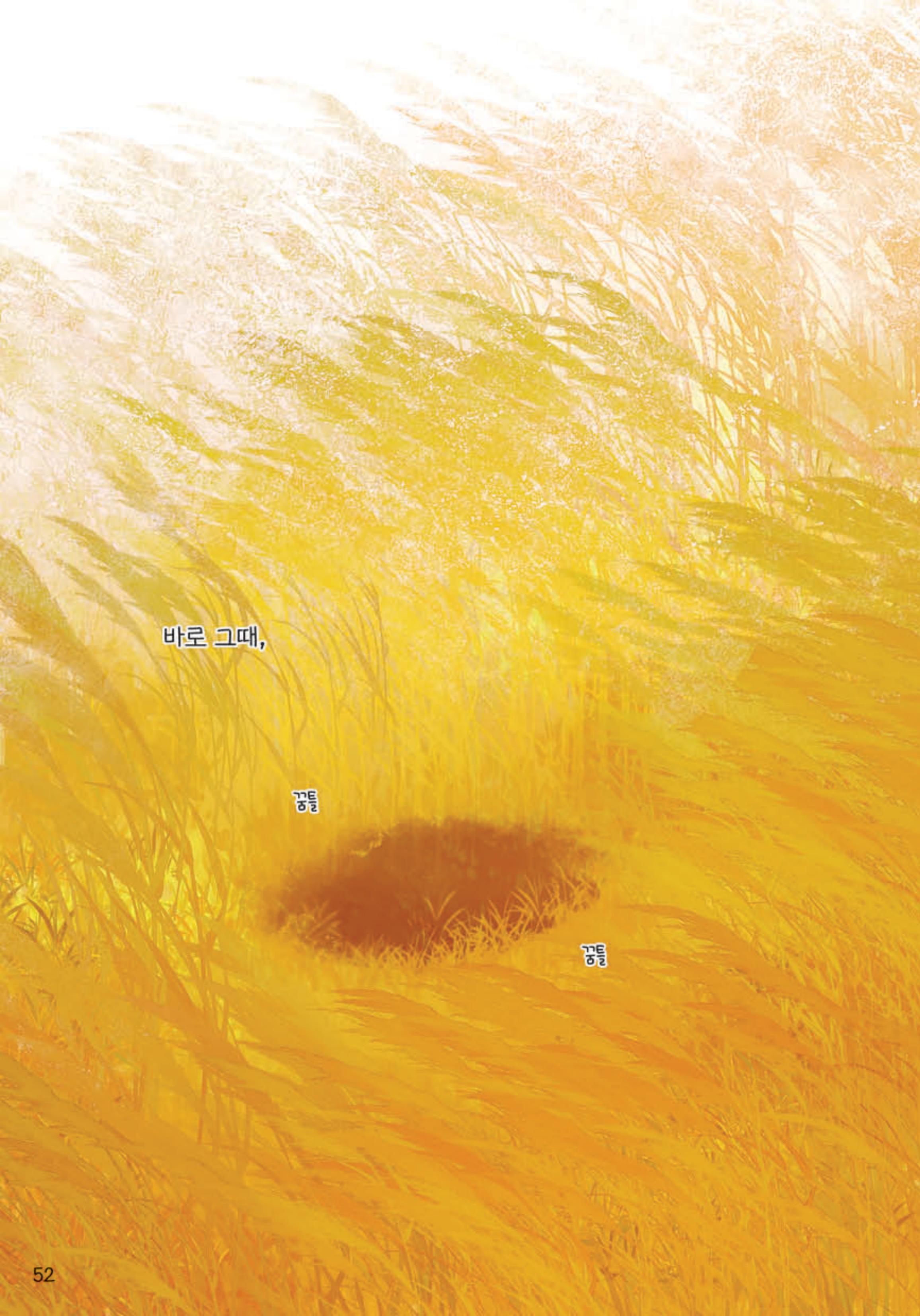
## 건우의 줄기와 잎



선일이가 지나간 자리에는 고요한 초원만이 남았어요.



지친 해바라기들은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잠들어 있었죠.



“나는 건우야!”



54

초롱

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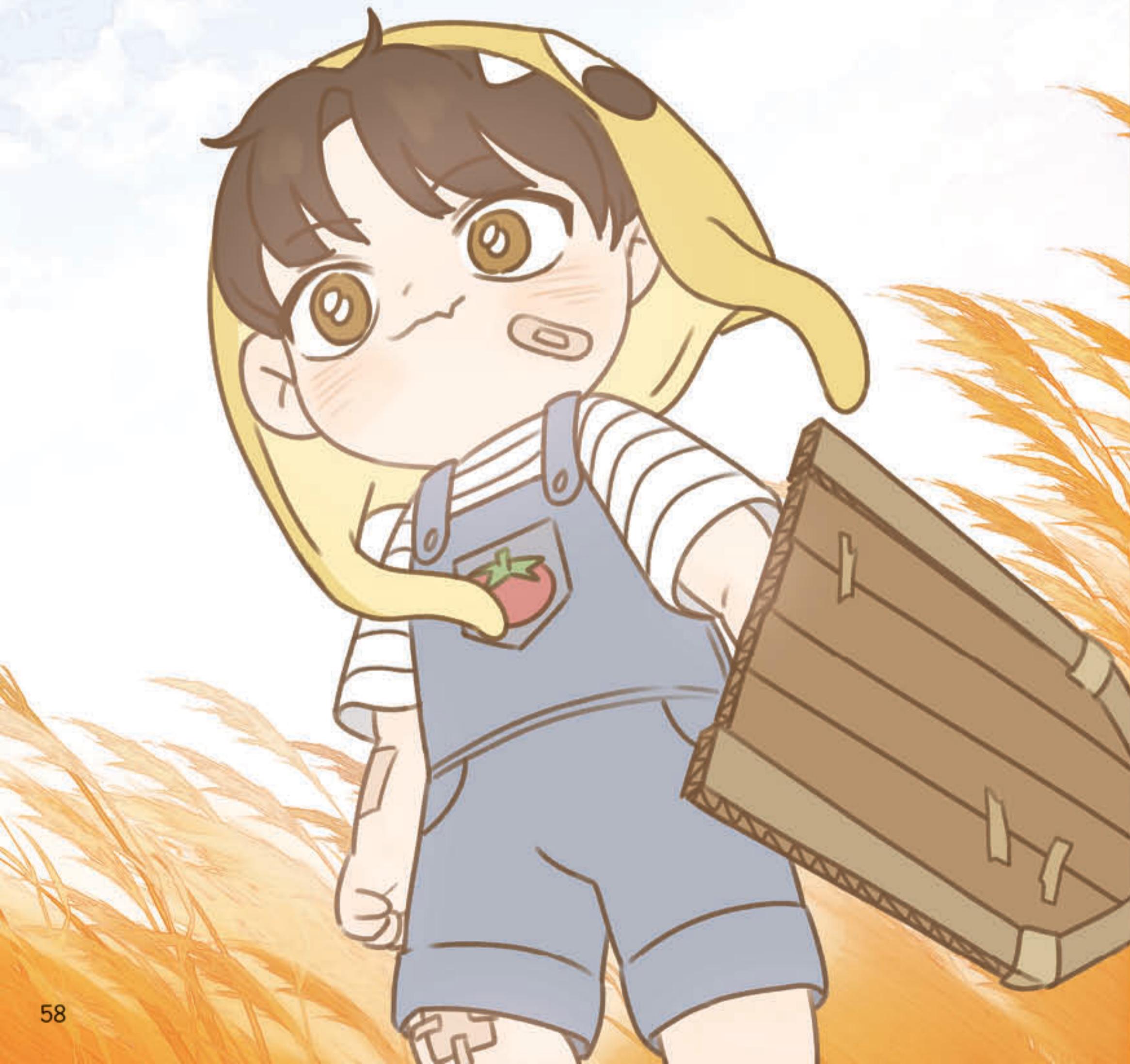


그는 어려움 속에서도 다른 이들을  
지켜주는 든든한 방패 같았어요.



“내가 지켜줄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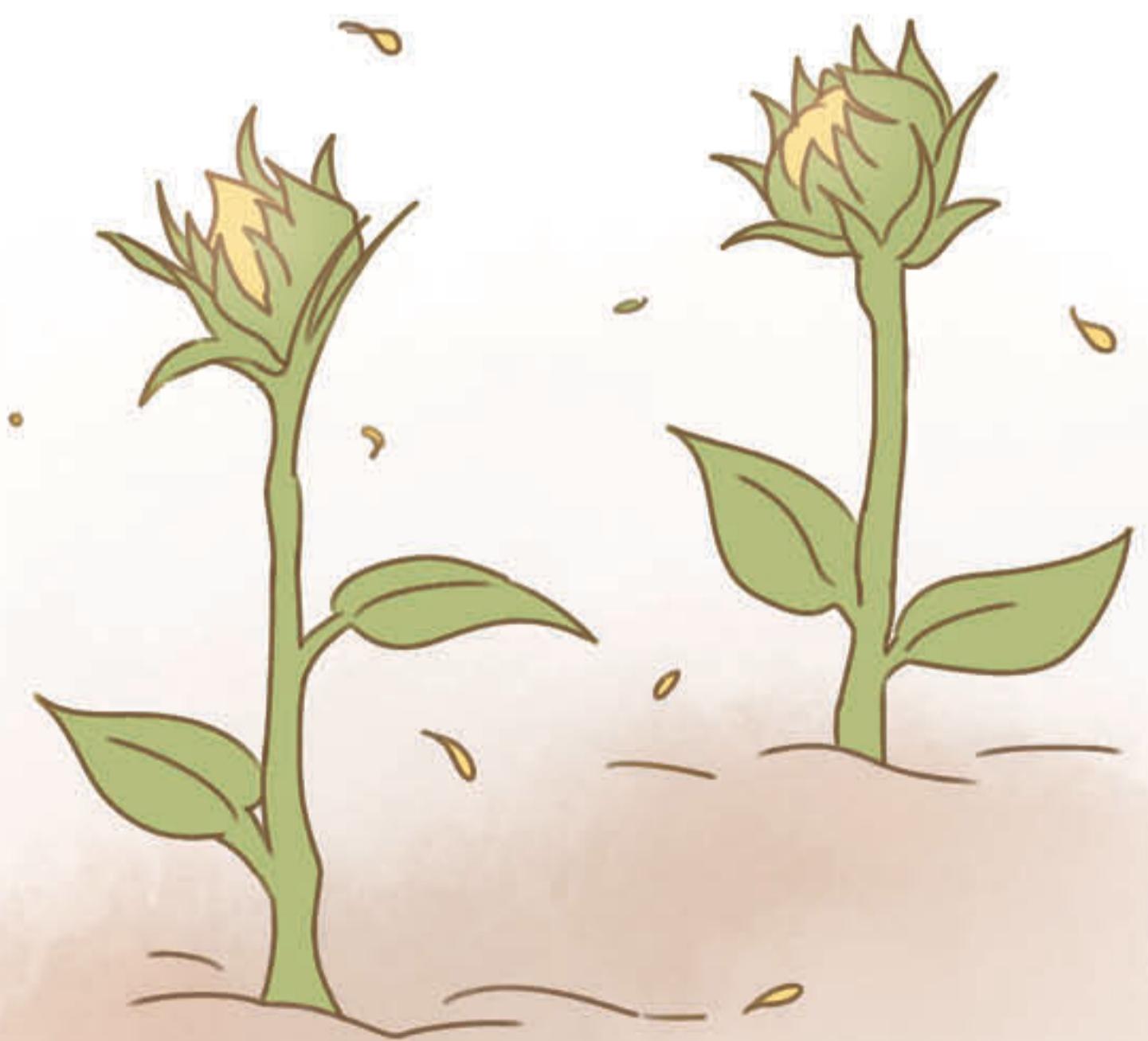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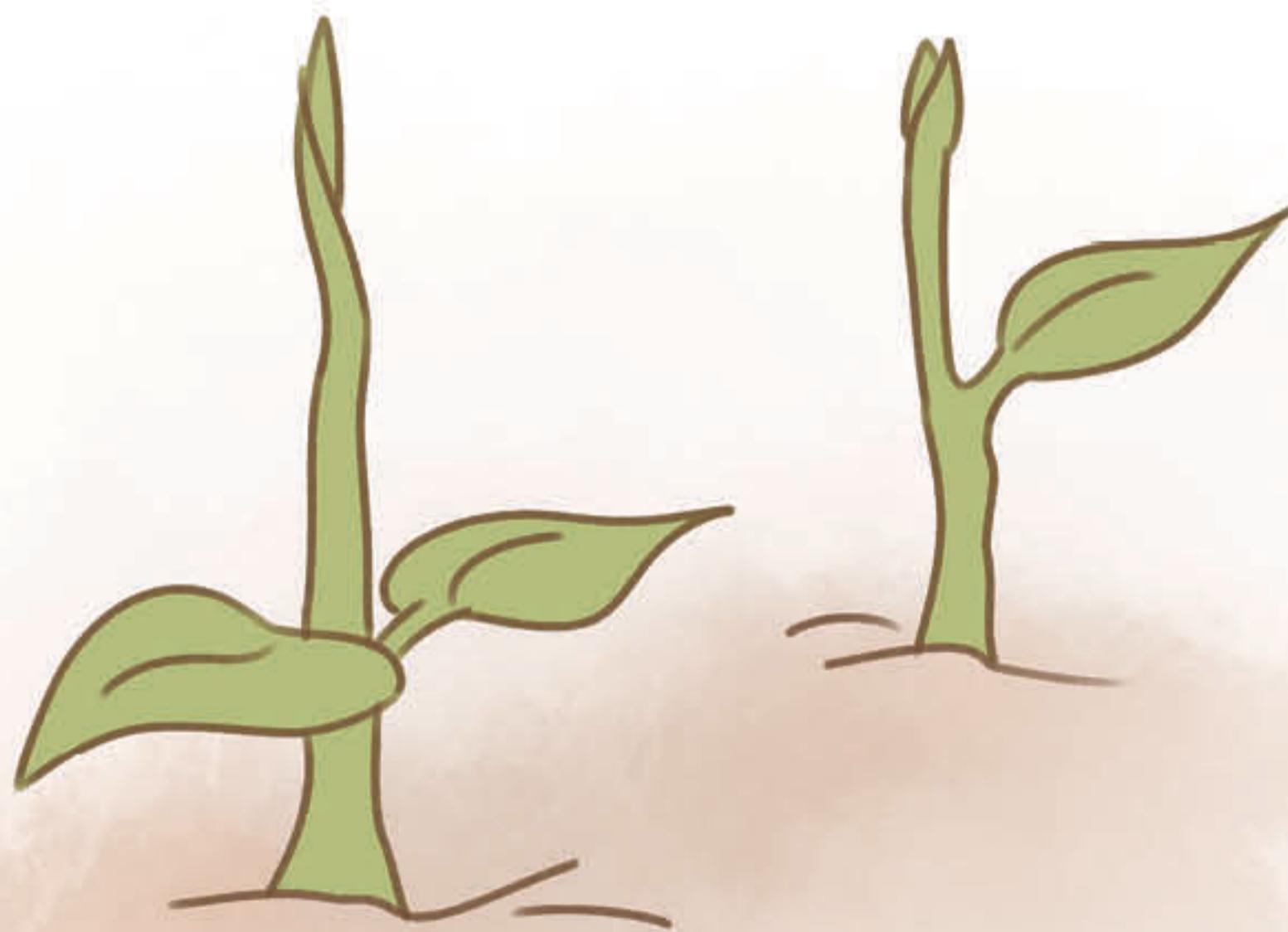
건우는 곁으로는 강인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엔 공허함이 자라나고 있었죠.



그러던 중, 어느새 훌쩍 자란 해바라기들이  
그의 발밑에서 뿌리처럼 힘을 보내주었어요.



“건우님 덕분에 저희는 혼들리지 않고 설 수 있어요.”



“헤헤!”





그 말이 줄기를 타고 전해지자,

건우는 폭풍 속에서도 초원을 굳건히 지킬 힘을 얻었어요.

“나는 이제 강해졌어!”



비바람이 몰아쳐도 쓰러지지 않았던  
그는 때때로 공허함에 외로움을 느끼기도 했지만



자신이 지켜야 할 존재와  
해바라기들이 보내는 뿌리 같은 마음을 느끼며  
앞서간 이들의 길을 따라 묵묵히 걸어갔어요.



그렇게 건우는 서로에게 안정과 믿음을  
지켜주는 든든한 방패가 되었답니다.



## 호야의 꽃봉오리





이름 모를 초원의 한가운데에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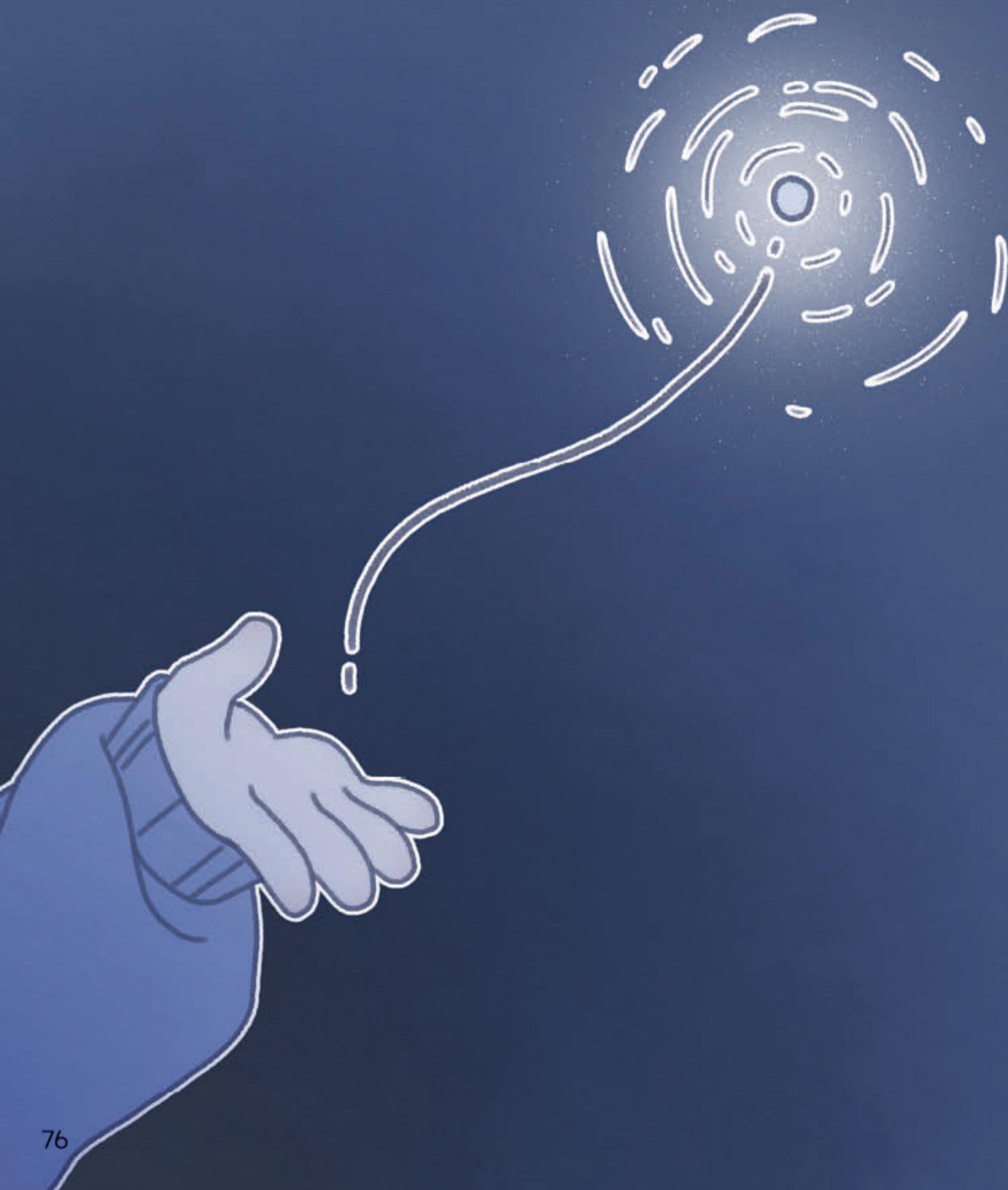
호야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나는 호야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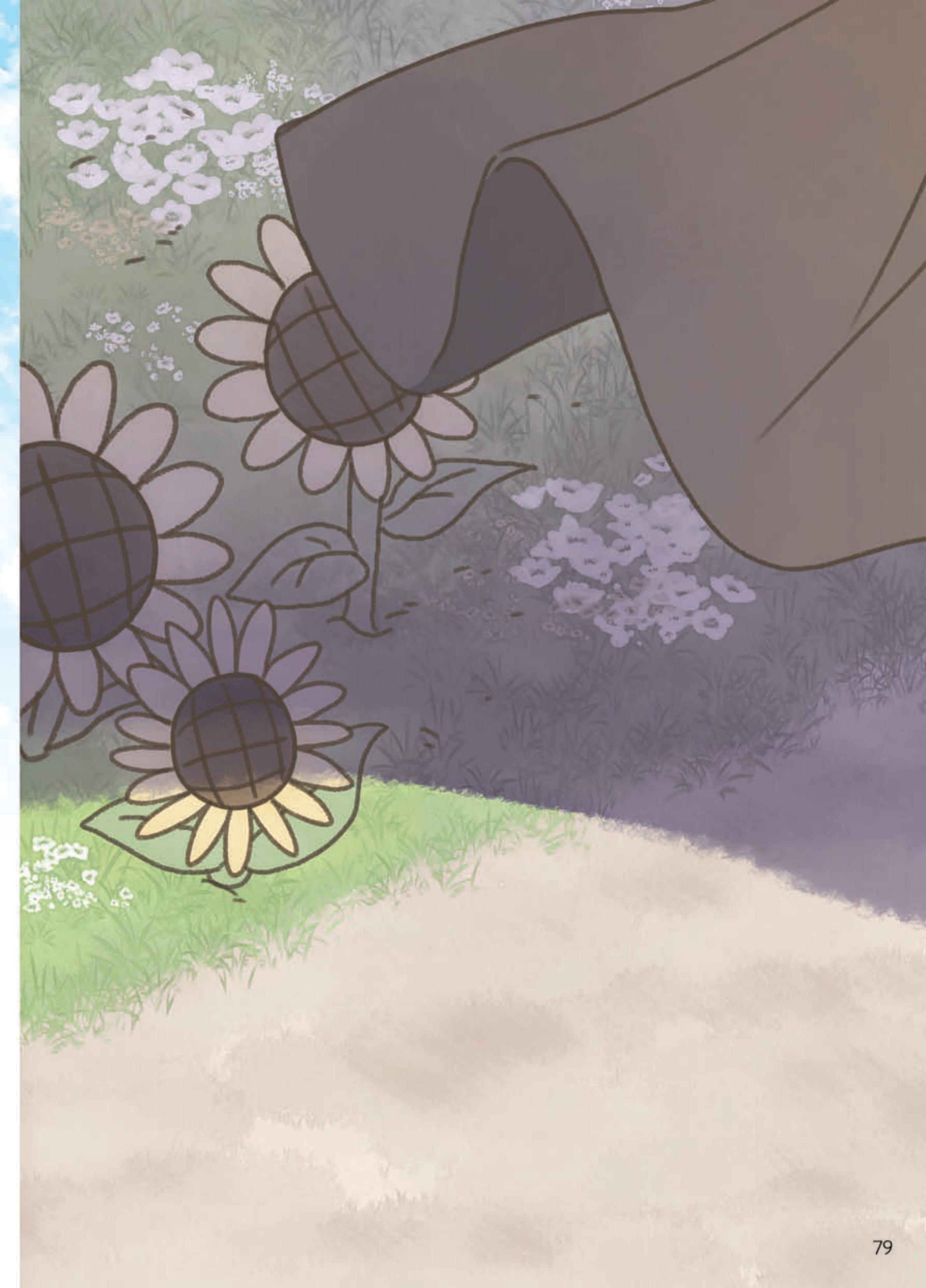
그는 빛과 지혜를 발휘해 모든 꽃들과  
영웅들을 밝게 비추는 뛰어난 전략가였죠.



빛이 약한 곳에서는 그 빛을 모아 주변을 환하게 밝혔고,



길을 잃은 이들에게는 가장 빠르고 안전한 길을 알려주었어요.



하지만 초원은 점점 서로에게 등을 돌리기 시작했고,  
결국 작은 빛마저 사라져 버렸어요.



"한 번만... 다시 돌아와 주."





끝까지 애썼지만,

지치고 상처 입은 그의 마음은  
금이 간 거울처럼 산산이 부서져 버렸답니다.

길고 긴 방황 끝에, 한 줄기 따뜻한 바람이 불어왔어요.  
그 바람 속에는 다른 초원의 소식이 담겨 있었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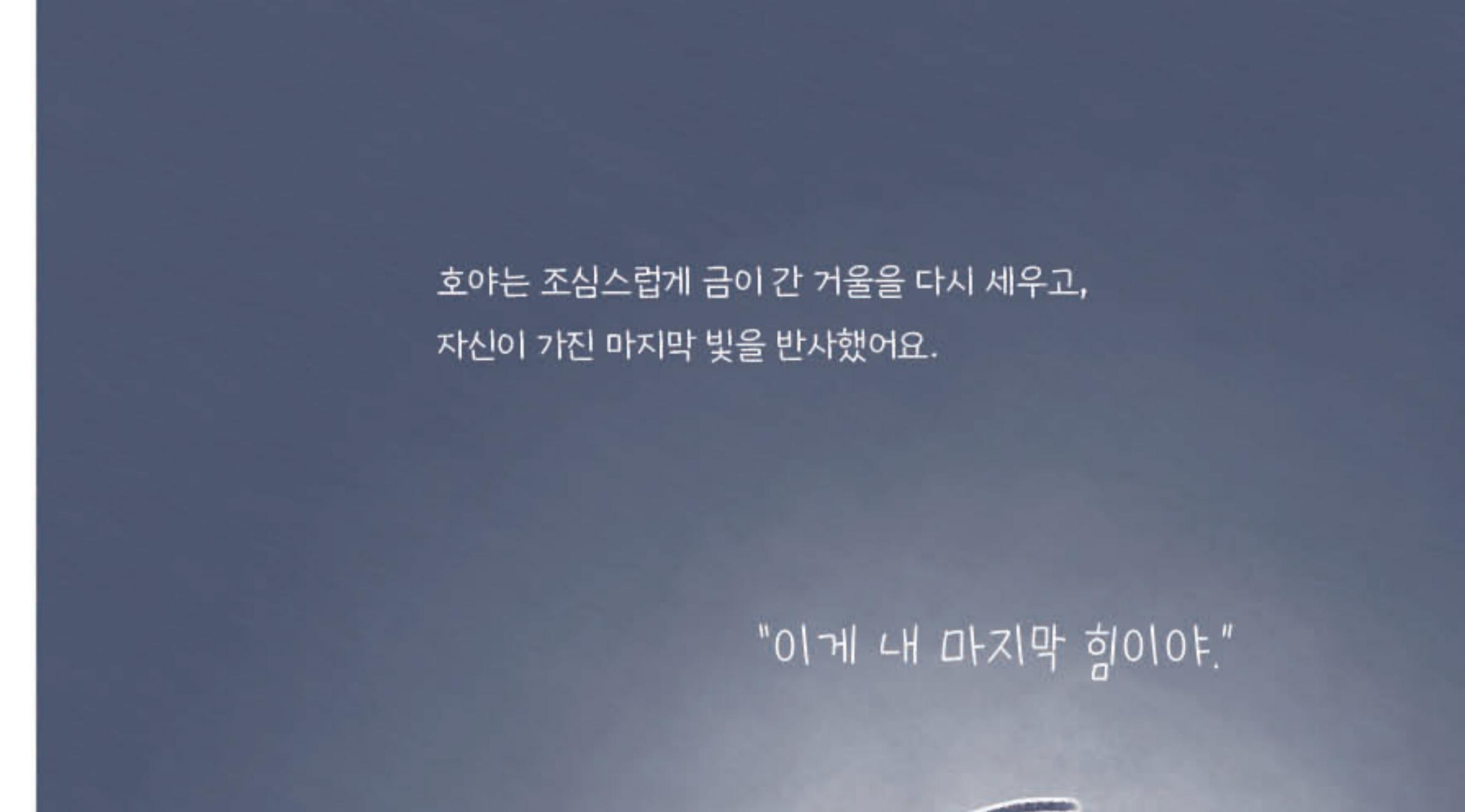
“이 곳에는 네 빛을 기다리는 해바라기들이 있어.”



“내가 갈 수 있도록 안내해 주.”



그 목소리에 이끌려 호야는 새로운 초원으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그 곳에는 아직 작고 연약한 해바라기들이 가득했죠.



호야는 조심스럽게 금이 간 거울을 다시 세우고,  
자신이 가진 마지막 빛을 반사했어요.



"이게 내 마지막 힘이야."

스윽

그러자 놀랍게도 그 빛은 다른 영웅들의  
햇살, 바람, 방패와 어우러져 초원 전체를 환히 비추었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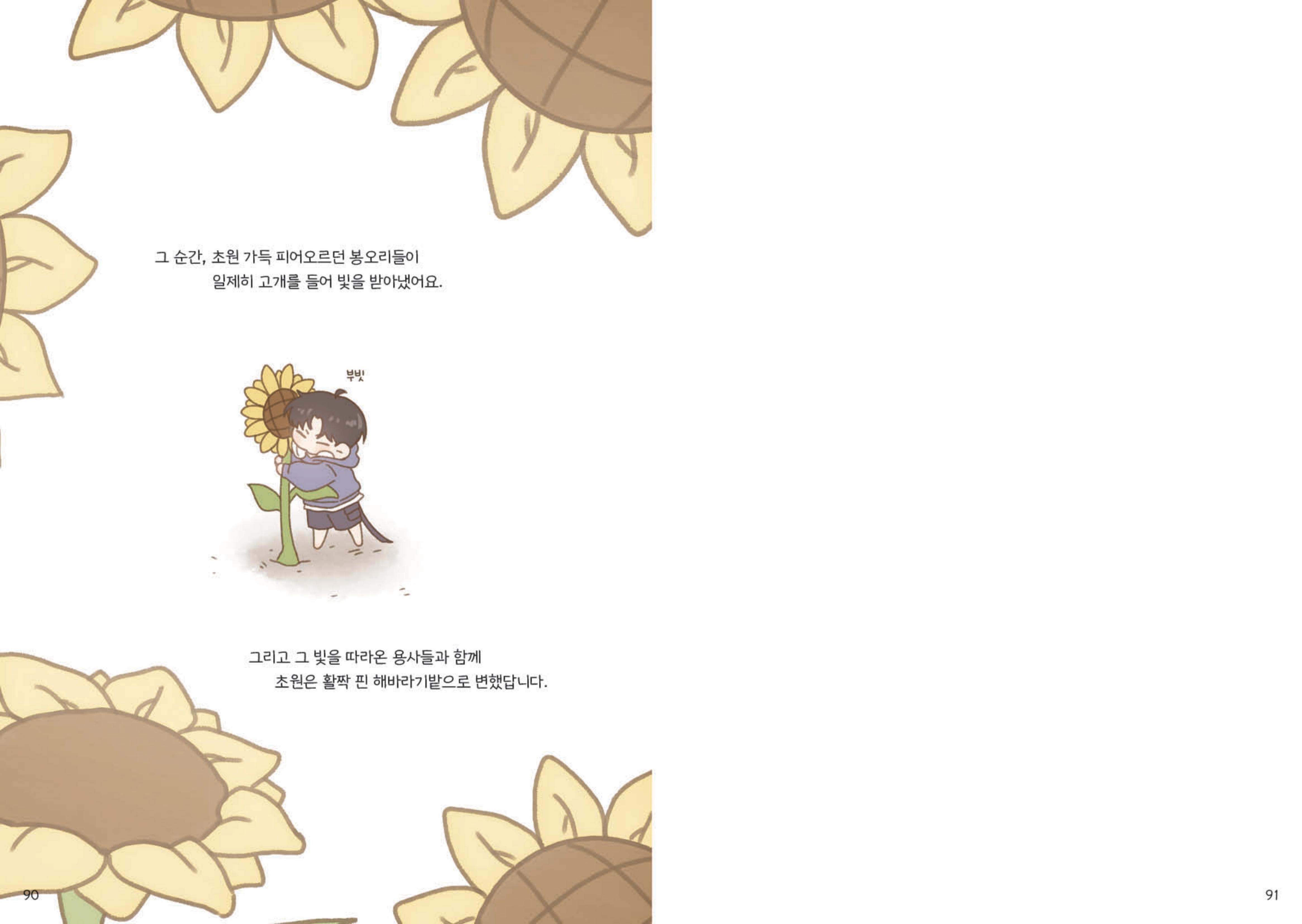
호야는 더이상 혼자가 아니었어요.



"나 안아죠."

이제 그는 자신의 빛을 반사해  
함께 자라도록 돋는 멋진 전략가가 되었죠.





그 순간, 초원 가득 피어오르던 봉오리들이  
일제히 고개를 들어 빛을 받아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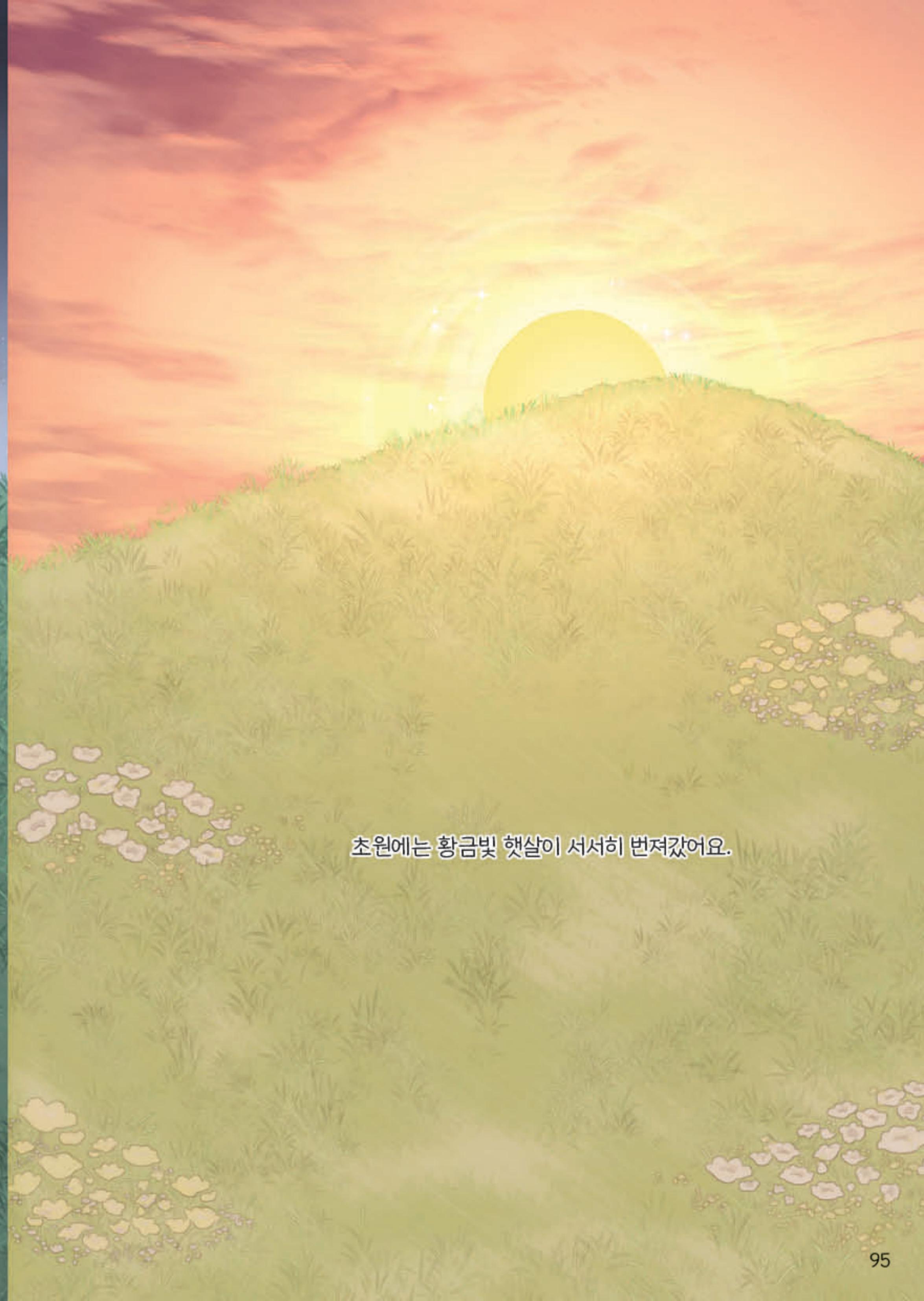
그리고 그 빛을 따라온 용사들과 함께  
초원은 활짝 핀 해바라기밭으로 변했답니다.

완전한 꽃, 해바라기들과 해보자시리즈





마침내 새벽이 물러가고,



초원에는 황금빛 햇살이 서서히 번져갔어요.



우석이의 따스한 햇빛은 잠든 씨앗들을 깨웠어요.

"내가 이 잠든 씨앗을  
깨울 수 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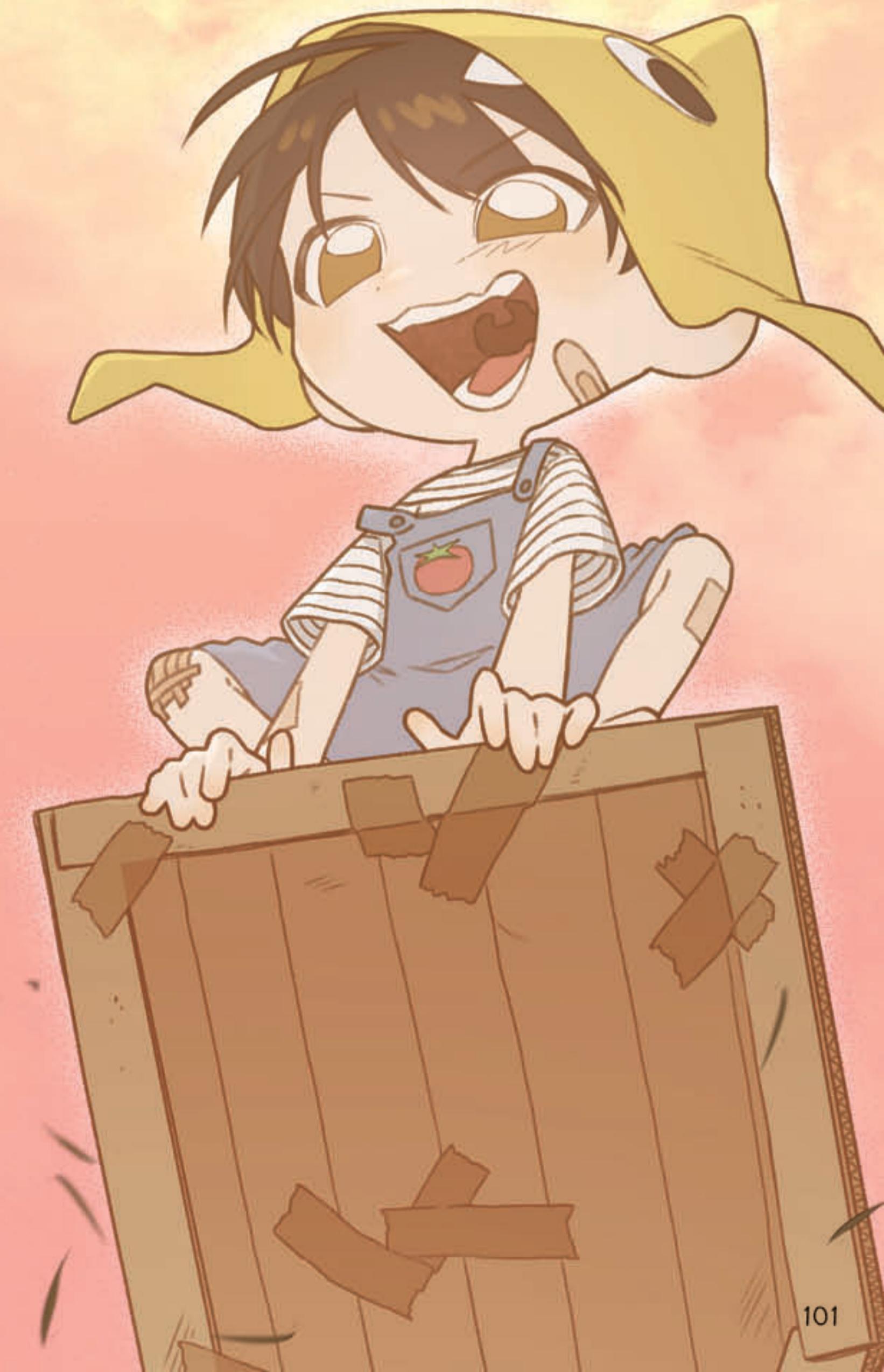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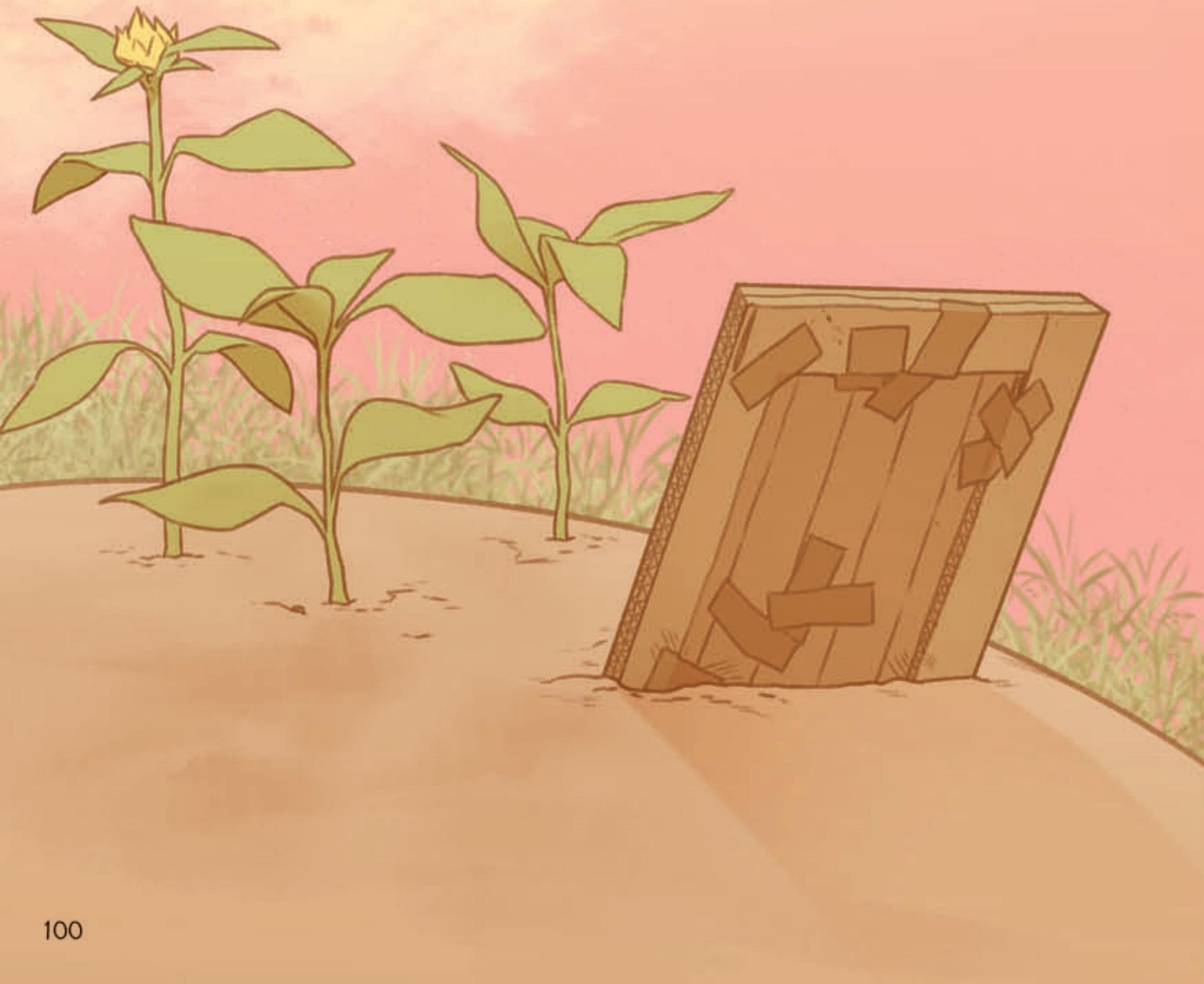
“나는 새싹들이 하늘을 보게 만들 거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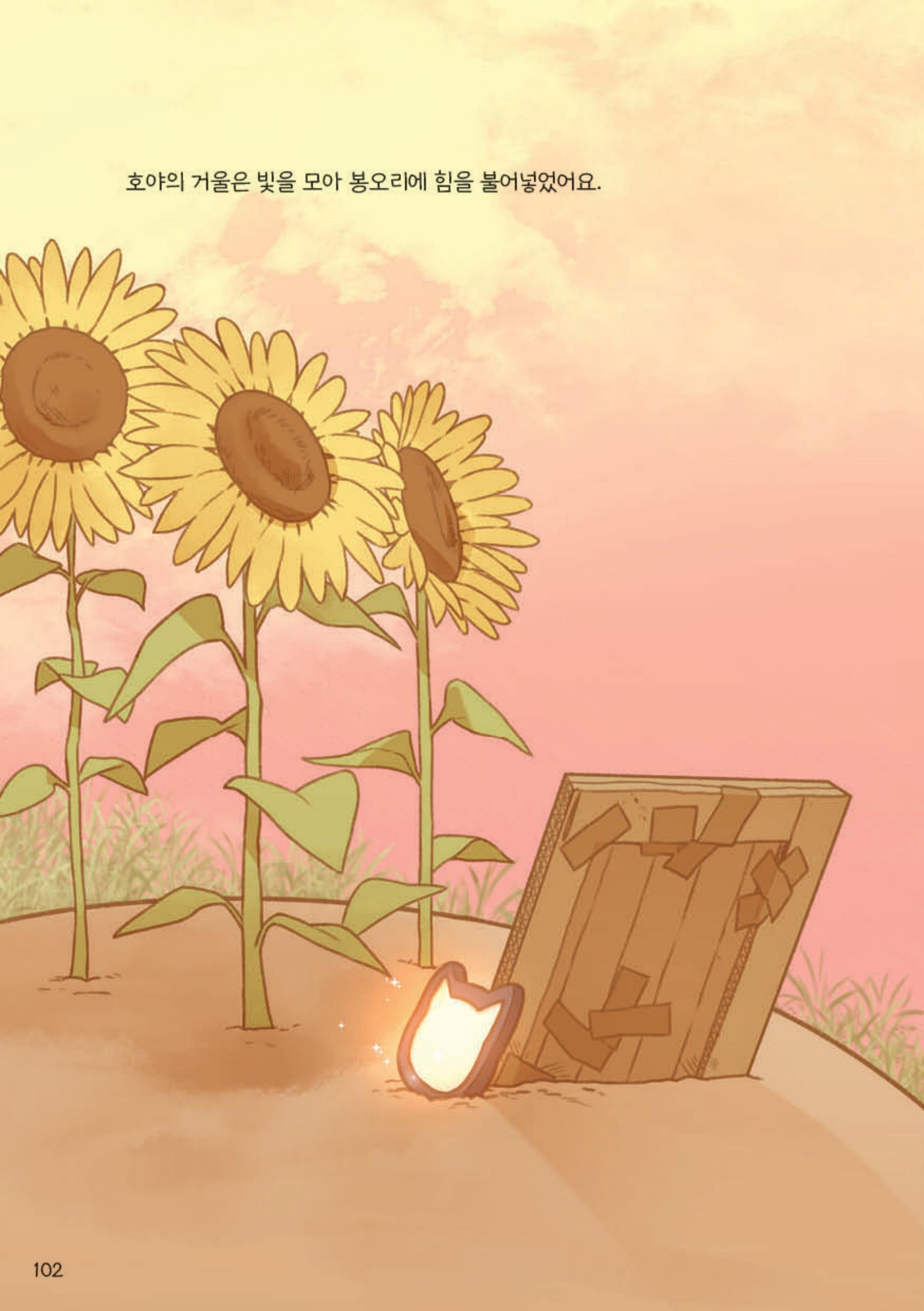
선일이의 시원한 바람은 새싹을 흔들어 고개를 들게 했어요.



“나는 줄기와 잎을 지켜줄게.”

건우는 든든한 방패로 줄기와 잎을 감싸 안았어요.





호야의 거울은 빛을 모아 봉오리에 힘을 불어넣었어요.

"나는 꽃봉오리가 피어날 수 있도록 힘을 보탤게."



모든 힘이 하나로 모이자 초원 가득 움츠렸던 봉오리들이



하나둘 고개를 들며 햇빛을 향해 활짝 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 해바라기 꽃밭이 완성됐어요.

초원 한가운데 서 있는 네 명의 영웅 앞에는  
끝없이 이어진 노란 물결이 일렁이고 있었어요.



꽃잎마다 해바라기들의 마음이 담겨 있었고, 작은 글귀들이 모여  
초원 전체를 하나의 아름다운 이야기로 엮어냈답니다.



네 명의 영웅은 서로를 바라보며 깨달았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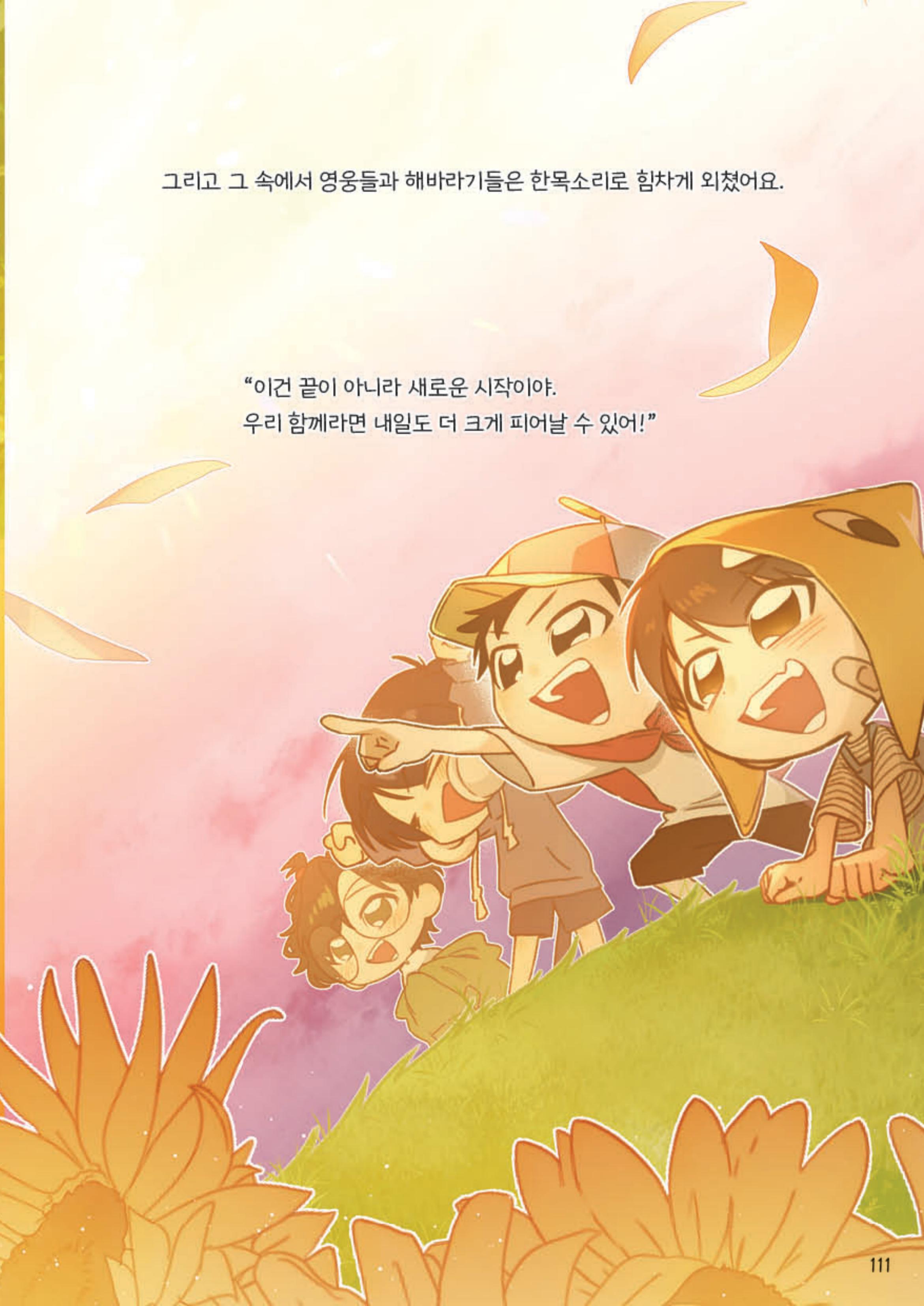
이 모든 여정과 고난은 바로 이 해바라기밭을  
함께 피워내기 위한 소중한 과정이었다는 걸요.





초원에 끝없이 펼쳐진 노란 물결은 단순한 풍경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팬들이 보내온 1년간의 사랑, 편지와 이야기, 웃음과 눈물이 모여 이룬 소중한 결실이었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영웅들과 해바라기들은 한목소리로 힘차게 외쳤어요.

“이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야.  
우리 함께라면 내일도 더 크게 피어날 수 있어!”



그렇게 초원은 단순한 꽃밭이 아니라, 또 하나의 새로운 세계로 피어났어요.  
멀리서 바라보면 마치 별빛처럼 반짝이며 끝없이 펼쳐진 황금빛 바다 같았죠.

그리고 그 위로,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두 번째 해가 떠올라  
더 큰 꽃밭을 예고하듯 초원 위를 환히 비추고 있었답니다.



유바 치바 해바!

## 도움 주신 해바라기분들

스토리 디렉터 : 만두

아트 디렉터 : 풍당집사

디자인 디렉터 : 뚱인데요

우석님 파트 해바라기

작화/선화 : 탄계란계

채색 : 풍당집사, 뚱인데요

선일님 파트 해바라기

작화/선화 : 미야

채색 : 징긋

건우님 파트 해바라기

작화 : 뚱인데요

선화 : 하별

채색 : 르예

호야님 파트 해바라기

작화/선화 : 임꿍지

채색 : 소재

해시즈 파트 해바라기

작화 : EI0

선화 : 풍당집사

패색 : 하별

일러스트 : EI0

꾸밈 해바라기

미야, 승아, 시루떡, 진아,  
진지, 탄계란계

배경 해바라기

진지, 승아, 미야, 르예,  
풍당집사

표지 : 풍당집사

